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하천제방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지방하천 462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시설물 점검과 일제 제방 정비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하천제방과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와 하천의 기능 유지, 재해 사전 대비 상황 등이다.

시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78개소, 소하천 282개소 등 법정하천 364개소의 크고 작은 지정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뚝마루요철 정비와 축제 정비,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발전기관 선정

정읍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분야) 운영실적평가'에서 전국 97개소(20만㎡ 이상) 매립시설 중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적평가항목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등 1년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전국 659개소를 대상으로 소각, 매립, 생활자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시는 정읍시 광역매립장이 전년 대비 실적 2등급 상승으로 매립시설 분야에서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 광역매립장은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했고, 체계적인 복토 작업(흙 덮기)과 다짐 작업으로 침출수를 대폭 감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센터 2호점 문 활짝... 교과 학습지도·예체능 등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정읍시는 29일 지역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읍시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내탕 내탕)'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돌봄센터 개소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소식은 최재용 부시장과 시의원, 지역이동센터 연합회장,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안

전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유흥공간을 활용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센터는 상동(상사리길 16)에 자리한 2호점은 연면적 90.02㎡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집중 지도실, 주방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아동 정원은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 교사 2명이 상시 근무하며 불한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

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돌봄센터는 수요에 따라 야간돌봄 등 일시 돌봄도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의 안심 보호를 중점에 두고 교과 학습지도와 다양한 예체능, 독서프로그램 등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돌봄센터 개소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4년부터 4년간 배드민턴 대회

정읍시, 한국대·실업 배드민턴연맹과 전국 대회 개최 협의

정읍시는 29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산하 한국대학·실업 배드민턴연맹과 전국 연맹 종별(대학·일반)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이형관 한국 대학연맹 회장, 김중수 한국 실업연맹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 연맹 종별(대학·일반)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정읍에서 열게 된다.

전국 연맹 종별(대학·일반)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전국에서 700여 명의 배드민턴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회다.

시는 대회 일정 동안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읍시 고유의 대회 명칭을 붙여 스포츠 대회를 통한 시 홍보와 문화·역사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읍시 복합체육관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초등·중고 배드민턴대회 개최도 가능해진다"며 "선수단과 가족들이 정읍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0회 부안마실축제 총감독 이영민 감독 위촉

부안군은 29일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제10회 부안마실축제 총감독으로 이영민 감독을 위촉했다.

이영민 총감독은 20년 넘게 다수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17년·2022년 광주 동구 추억의 총감독, 2018년·2019년 명량대첩축제, 2017년~2019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2008~2017년, 2019년 정남진 장흥물축제 등을 기획·제작 및 감독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킨 축제전문가이다.

이영민 총감독은 "박종환 책임을 느낀다"며 "마실은 부안만이 내세울 수 있는 콘셉트로서 마실축제의 킬러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안마실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겠으며, 준비단계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해외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역량있는 감독이 위촉된 만큼 기대가 크며, 부안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관람객과 군민이 모두 만족하는 부안만의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0회 부안마실축제는 내년 5월 4~6일 부안 매창공원에서 개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선 8기 첫 지역경제활성화 협의회 개최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 지역 경제인·기관·단체장 등 위촉직 18명 총 20명 위원

고창군이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 경험자 풍부한 지역 경제인 기관 및 단체장 등 위촉직 18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특히 민간위촉직의 비율을 높여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회의에선 △고창사랑기부회 활성화 △인구 5만 지키기를 위한 신활력 인구정책 추진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 민선 8기 경제 관련 주요 사

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 협의회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고창군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농산물 판매 협약 체결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대표 이안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에서 내년 1월부터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월 275포(연 1억 5000만원 상당)를 구매하기로 했다.

고창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입주민에 홍보하고, 고창군에서는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관리, 생산능가 지원 등 상호협력기로 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국내 프리



미엄 실버타운을 선도하는 업체로 고창타워를 비롯해 서울타워, 강서타워 등 총 6개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현재 1600세대, 2100여명이 입주해 있다.

또 송도병원 등 산하기관에 고창 쌀

이 공급되어질 예정이다. 고창군은 향후 입주민을 대상으로 쌀 이외에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의 지역사랑 일환으로 고창 농산물 구매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이 우리군 농산물 홍보 판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부안군은 2022년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 115동과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하여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동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은 건축주가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의 일부를 최대 350만원까지 보조하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빈집에 대

한 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2023년부터는 보조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빈집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을 수리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빈집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